

마음에도 실내에도 차안에도 365일 법향 가득

불가 2558년(2014) 불교달력

“탁상용 달력에 있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수행정진을 다짐해요!”

새해 달력을 보면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보인다. 달력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불교계 주요 기관 및 기획사의 달력을 살펴본 결과, ‘마음챙김’ 등 불교 가르침을 주제로 한 달력이 대부분이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불자들이 새해를 차분히 맞이하는데 일조하고자 함이다. 여기에 작품성 높은 스님들의 사진과 참신한 디자인, 실용성을 가미해 소장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미공개 회귀 사진, 잠언 캘리그라피 등 선보여

조계종 출판사(사장 김용환)는 조계종 수의사업 차원에서 달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하에 유통사업부를 두고 ‘달력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 출판사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40만부를 판매했다.

달력 중 수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14종에 그쳤지만 그 면면을 보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달력이라는 평가다. 미공개 회귀사진을 비롯해 수준 높은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좋은 삶을 위한 부처님의 12가지 말씀’을 주제로 한 법문 달력이 눈길을 끈다. 매일 매일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이순간 깨어 있으라’ 등 부처님 잠언을 전문 캘리그라피인 백천 김형재 선생의 글씨로 그려냈다.

또 조계종 출판사는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관조스님의 ‘사찰꽃살문’을 소재로 달력을 제작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스님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때마다 스님의 마음과 ‘옛 가람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다.

조계종 출판사는 달력 첫 장에서 “사찰의 꽃살문은 경건한 불교 신앙심이 민중의 마음과 결합된 것”이라며 “꽃살문은 긴장이 필요없는 편안한 가운데 달린 정감을 주는 독특한 미술품”이라고 표현했다.

‘달마도’도 빠질 수 없는 달력계의 단골손님. 이번 달력에는 각주 해인 스님의 금니 작품을 담았다. 검푸른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달마스님의 행적과 모습 등을 잘 추려낸 ‘달마도 달력’은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조계종 출판사는 ‘펜으로 만나는 사찰’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보기 못하는 사찰을 소개했다. 금강산 신계사와 보덕암, 화왕산 용선대 등을 디자인 전문가인 김영택 작가의 펜화로 표현했다.

또 원성 스님의 ‘동자승의 하루’도 인기가 높다. 먹을 감는 동자승, 차를 마시며 박장대소하는 동자들 등 어린 스님들의 해맑은 모습을 익살스럽게 담아냈다. 작품 안에는 풍경소리에서 지원한 재밌는 글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는 불교계 달력.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뒤로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힐 수 있는 법문 달력 등이 눈길을 끈다.

귀도 함께 결들였다. 원성 스님은 1988년 국제유네스코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1998년 뉴욕한인협회 초청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조계종 판사는 이외에도 차량용 미니달력, 탁상형, 수첩형, 메모가 가능한 수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달력을 출시했다. 출판사는 기성달력 외에도 해당 사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판제작도 대행하고 있다.

김용환 사장은 “그동안 불교계 달력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며 “수익금은 승려노후복지기금 등 종단 목적사업에 전액 기부 된다”며 불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사찰음식·사찰풍경·마음 코드 함께 담아

불교 전문 기획사인 감로기획은 총 52종의 기성 달력을 폐내 최다 부수를 자랑한다. 감로기획은 대·소자 달력을 비롯해 탁상용·메모수첩용·미니 차량용 등 다양한 달력을 선보였다. 이 중 ‘내 마음속의 법구’ 달력이 인기가 높다. ‘항상 내 마음을 잘지키자’ ‘속이자마라’ 등의 경구를 박병철 씨의 글과 그림

으로 담아냈다. 또 ‘선사들의 오도송·산승의 향기’에는 만암, 일

‘힐링’ ‘사찰풍경’ 등 작가 사진 대부분 탁상용, 차량용 선호현상 뚜렷 QR코드 등 IT활동 개발 과제

타, 성철, 한암 스님 등 고승들의 오도송을 담았다. 감로기획 달력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풍경 달력이다. ‘이루어주소서’, ‘산사의 풍경소리’, ‘한국의 기도도량’ 등 전국 사찰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았다. 감로기획의 경우 여기에 신선암 마애보살상, 불영사 등 전국 유명 성지순례 장소를 사진으로 담은 달력을 내기도 했다.

감로기획은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달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힐링, 마음 코드로 달력을 선보였다.

먼저 불교출판사는 ‘힐링, 마음을 찾다’를 주제로 달력을 내었다. 달력 사진은 하지권 불교사진 전문가의 작품이다. 하지권 씨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진DB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등을 사진작업했다. 불교출판

사 달력의 특징은 불광에서 출판한 마음치유와 명상 관련 책에서 문구를 발췌해 사용한 것. <탁났한 명상> <존 카밧친의 처음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등을 영문번역글과 함께 실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김대열 동국대 예술대 교수가 그런 동국대의 사계절을 담은 수목채색화를 실었다.

달력에 부는 ‘SMART’ 바람... 불교계는 아직 불교계에서는 탁상용 달력, 차량용 미니달력 등 다양한 달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달력의 변화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 달력을 주문해온 업체들도 벽걸이용 달력이 아닌 탁상용 달력이나 차량용 미니 달력을 선호하고 있다. 탁상용 달력과 차량용 달력은 크기가 큰 벽걸이용 달력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감로기획 관계자는 “예전에는 찢는 달력이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작은 달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교계 달력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가 달력을 대신하며 달력 수요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달력 등 종전에는 단순하게 숫자판 중심이던 달력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 달력에 기업 홍보를 위한 QR코드를 넣는 등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달력의 경우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계절별 풍광과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동영상도 볼 수 있다. 일명 뽀빠리로 불리는 에어캡으로 매일 달력을 터뜨릴 수 있는 달력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달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 한 달력 전문제작업체는 “판매부수는 대외비로 밝힐 수 없지만 예년에 비해 10% 정도 판매 부수가 감소했다”며 “불교계는 그나마 달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환 중앙승가대 표교사회학과 교수는 “불교계는 아직 IT기기 활용을 고려한 달력은 선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대행 스님 법어 세로서 가로 쓰기로 변화

한마음선원은 2014년 ‘나의 참마음이 내 생활의 근본이자 우주의 근본이다’라는 대행 스님의 법어를 주제로 달력을 제작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맑아 놓을 것이 없다’ ‘밝은 마음이 바로 부처이자 연등이다’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답답함이 나오는 그곳에서 부처도 나온다’ ‘일상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참선이다’ 등 대행 스님이 평소 했던 법문을 실어놓게 담았다. 법문 내용을 영어로 함께 실어 평소 불교의 세계화를 강조한 스님의 뜻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법문 글씨는 서예가 청우 윤상민 선생이 담당했으며 화가 호산 임효 선생이 그림으로 함께 표현했다. 청우 윤상민 선생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한국서예가협회 이사로서는 한국 서예의 대가이며 호산 임효 선생은 국내의 초대전을 20여회 진행하고 동아미술상과 선미술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선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전문가다. 수십년간의 세로쓰기 방식에서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뀐 값어치 달력은 벽걸이용 미니달력과 탁상용 달력도 함께 제작했다.

약사여래부처님은 계십니다!! 병고가 치유되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으로 오십시오

중생의 고통중에 병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중한 병고는 대부분 전생의 업장이 발현한 것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합니다.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업장소멸과 병고치유로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약사여래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허리통증이 치유되다

저는 허리통증으로 근 30년 가까이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헤밍스님께서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날짜를 빨리 잡아주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약사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만같은게 서 있지도 못한 제가 조금씩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리병을 지금까지는 내가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해서 아프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병이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업으로 인한 업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 대구에서 정영순 불자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법 : 매일 <약사여래본원경>을 읽고 ‘약사다라니’를 하고 참회·발원을 한 다음 ‘약사여래불’을 간절히 정근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현신해서 당신의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멸해주시고 병고를 치유해줍니다. 기도할 때는 청정수를 준비했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십니다.



약사제일 - 매일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팩스 033)681-5538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전화 033)681-5515

※ 약사제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